

의장불신임결의(안) 심사보고서

1997. 5. 29

발의자 : 이명훈의원외9인

1. 審 查 經 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7년 5월 29일 이명훈 의원외 9인 제출

나. 회부일자 : 1997년 6월 30일 회부

다. 상정일자 : 1997년 6월 30일 제49회 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1차 회의 상정 부결

2. 注 文

1996. 12. 21 정·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거 이후 현재까지 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와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 불신임안을 제출하게 되었음.

3. 不 信 任 事 由

1. 1997. 2. 17 기시와다시 방문중 모 재단 이사장인 김중근으로부터 받은 금일봉을 수입 창조금 지출 명세서에 누락시킨 후 공금을 유용하였음은 양심과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 불신임안을 제출함.

2. 여의도 광장 공원화 계획에 대한 '97. 5. 7 본회의장에서 사과한 후 5대 일간지에 해명 사과를 낸다고 한 후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음은 의장으로서 자질에 문제가 있어 불신임안을 제출하게 되었음.

4. 審 查 結 果 : 부결(찬성 3, 반대 5, 기권 1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의장불신임결의(안)

의안
번호 124

발의년월일 : 1997. 5. 29.
발 의 자 : 이명훈 의원의 9인

1. 주 문

1996. 12. 31. 정·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거 이후 현재까지 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와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 불신임안을 제출하게 되었음.

2. 불신임 사유

1. 1997. 2. 17. 기시와다시 방문중 모재단 이사장인 김종근으로부터 받은 금일봉을 수입찬조금 지출명세서에서 누락시킨 후 공금을 유용하였음은 양심과 도덕성에 있어 문제가 있어 불신임안을 제출함.
2. 여의도 광장 공원화 계획에 대한 '97. 5. 7. 본회의장에서 사과한 후 5대 일간지에 해명사과를 낸다고 한 후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음은 의장으로서 자질에 문제가 있어 불신임안을 제출하게 되었음.

김형수의장직 불신임

=====

지방자치법 제49조 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에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서명으로 발의합니다.

1. 김형수 의장은 취임 1개월 뒤('97. 2. 17) 동료의원 17명과 공무원 3명을 대동하고, 일본 기시와다시를 방문하던중 김종근 모재단 이사장이 동료의원의 대표인 김형수 의장에게 금일봉을 준 사실이 있으나 김형수 의장은 금일봉 내용을 동료의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수입과 찬조금 지출명세서에 기록을 고의로 누락시킨 후 공금을 유용하였기에 숨은 양심과 도덕성이 결여된 자로서 불신임의 건을 제출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 푸른서울가꾸기 역점사업으로 여의도광장을 공원으로 만들기로 하였다. 더욱이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유일하게 영등포구만 산이나 공원이 없어 여의도 주민은 물론 영등포구민 대다수가 공원화되기를 원하고 있다. 선거철이나 시국이 시끄러울 적마다 데모하는 장소로 교통마비는 물론 주민의 불편이 말미 아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여의도광장을 공원화하기 위하여 1997. 4.10에 기공식을 가졌는데 김형수 의장도 참석하여 삽질까지 하였으면서도 나중에는 여의도공원공사증지가처분신청서에 김형수 의장이 서명하여 이중성을 나타냈으며, 신문보도에 의하면 마치 영등포구의회 의원 전체가 공원화를 반대한 것처럼 보도되자 일부 의원들이 반박하여 1997. 5. 7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김형수 의장이 잘못된 것을 사과하고, 5대 일간지에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아니라 개인의 자격으로 서명했다고 신문에 해명서를 낸다고 해놓고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신문에 해명서도 안 내고 여러 의원들을 기만한 김형수 의장이 후반기에 의회를 이끌어 가는데는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불신임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밖에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점들이 있으나 추후 말씀드리기로 하고 동료의원들께서 다 알고 계신 위 사항만으로도 의장불신임이 되므로 현명하신 동료의원들께서 냉정한 결단으로 우리구 의회 정기를 바로 잡아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